

데뷔 19년만에 신학생 민세준으로 재탄생하다

팍페라 테너 임형주, 첫 카톨릭 단편음악영화 '마지막 고해-더라스트 컨페션' 출연

"처음에는 뽀빠이였어요. 제가 액팅을 한 것은 무대 연기가 전부인데, 영상 연기가 처음이니 대사를 하며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셋째날, 넷째날 지나고 나니 세준에게 감정 이입이 되더라고요."

팍페라 테너 임형주(30·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가 데뷔 19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했다. 국내 첫 가톨릭 단편음악영화를 표방하는 '마지막 고해-더라스트 컨페션(The Last Confession)'에서 신학생 '민세준' 역을 맡아 연기를 선보였다.

임형주는 6일 저녁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마지막 고해' 언론·VIP 사회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촬영이 끝난 날은 잠을 못 잤죠. 민세준 캐릭터가 내 안에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민세준(세례명 안토니오) 부제가 완전한 성자가 돼 가는 과정을 그린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괴로움에 영원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고자 성자가 되려는 민세준은 사제서품을 앞둔 마지막 학기의 방학 기간에 분당 성당에 잡

시 머문다.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윤지호와의 결혼 소식을 알려온 첫사랑 한서연과 10년만에 재회한다. 이후 벌어지는 하루 동안에 수없이 변하는 감정을 담은 작품이다.

임형주는 친분이 있는 드라마 작가 김수현이 전날 영화를 먼저 봤는데 "제법 영화답다"고 칭찬했다는 말을 전했다. 역시 함께 한 자리에 영화를 본 김해숙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다.

임형주는 '마지막 고해' 제작 과정에서 1인5역을 담당했다. 연기와 함께 영화의 각본을 썼으며 자신의 본업인 음악에 투자, 제작까지 손을 댔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말을 수밖에 없었어요. 연기가 처음인 신인 배우인데 누가 투자를 해주시겠어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임형주의 소속사인 디지털웍스 제작사로 나섰고 그의 음반 에이전시인 유니버설뮤직이 공동 제작으로 참여했다. 임형주의 팬클럽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독립영화인 이 작품의 제작비를 보탤다 이미 일간지에 고정 칼럼을 게재했고

장회빈 관련 역사에세이집을 펴내는 등 글쓰는 실력을 인정 받은 임형주는 빠듯한 영화 촬영 스케줄이 힘이 들었다고 했다. "다음에는 음악가 역할 또는 카메라가 아니면 연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고심해볼 생각"이라고 웃었다.

촬영은 한 달 전에 끝나는데 본업인 팍페라 테너 임형주에게 영향을 미쳤다. "제가 무대에서 액팅을 하는 팍페라 테너이기 때문에 오페라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이번 연기 경험이 앞으로 뮤직 커리어에도 영감을 줄 것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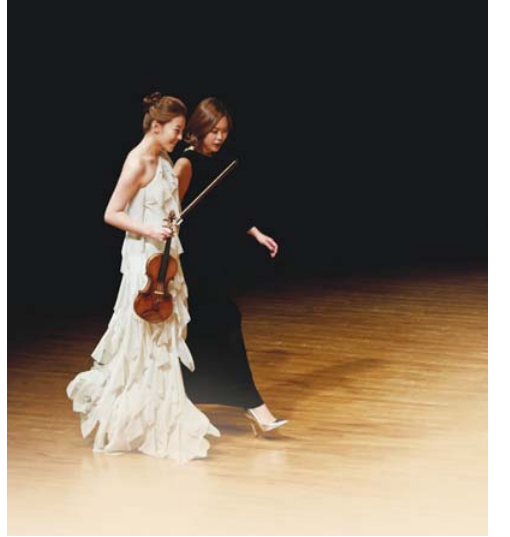
작품은 '마지막 고해' '눈 감기 전에' 등 서정적인 곡들이 계속 울려 퍼지며 음악영화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다. 시기가 엄숙한 만큼 시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임형주는 "문화예술인은 이런 시국을 위무하고 보듬을 필요가 있다"며 "관객 분들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드라마 '닥터스'로 이름을 알린 신인 여배우 이가경이 여주인공 한서연 역을 맡았다. 배우 이지원, 개그맨 조혜련이



팍페라 테너 임형주가 데뷔 19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했다.

카메오로 나온다. 7일 CGV청담씨네시티에서 1차례의 특별상영회를 연다. OST는 10일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발매된다. /뉴스



고단한 삶에 아름다운 위로가 되는 클라라 주미강&손열음 듀오 콘서트

클라라 주미강(바이올리니스트) "우선 파트너 악기에 관심이 좀 있고 그 악기를 좋아하면 실내악 하는 데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귀가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손열음(피아니스트)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서로의 음악적 취향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발산해 오고 있는 두 연주자가 오는 13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클라라 주미강&손열음 듀오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지난 3월 독일 하노버에서 녹음한 음반 발매를 기념해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두 연주자는 독일 낭만주의 최고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슈만의 아내 클라라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의 곡 '브람스 스케르초 Op.10 No.3 소나타,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3개의 로망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과 3개의 로망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을 선보인다.

이들 음악엔 절정의 시기에 찾아온 슈만의 정신병, 남편을 끝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핀 클라라, 부부가 힘들었을 때 깊은 우정을 베푼 브람스의 특별한 모습이 배어 난다.

클라라 주미강은 세계적인 음반레이블 데카에서 발매되는 두 번째 앨범을 이 세 작곡가의 작품으로 채운 만큼 애정이 각별하다.

특히 슈만과 클라라가 각각 남긴 3개의 로망스는 젊음과 사랑이 넘치는 곡이다.

또한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과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은 두 작곡가의 대표작인 실내악곡으로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로 꼽힌다. 슈만 소나타 1번에는 그가 겪어왔던 심리적, 현실적 고통이 녹아있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역시 말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사색적이다.

이들 곡을 선정한 이유를 주미강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백만가지의 감정들을 음표로 그려내는 듯 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라고 한다.

손열음 "제가 이 곡들을 선택한 이유는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3명, 그들을 연결시켜준 요소들은 사랑·가족·우정·음악적인 우정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어서 골랐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을 들어가지만 예술인·작곡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두운지도 너무나 알려주는 작곡가들이기도 하구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 인 거 같아요."라고 말한다.

이 듀오는 콘서트에서 브람스의 사색적인 분위기와 우울함을 오히려 고단한 삶에 위로가 될 만큼 아름답고 내밀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익산시립풍물단, 10일 '종횡무진' 선보여

매번 새롭고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는 익산시립풍물단이 11월 10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9회 정기공연 '종횡무진(縱橫無盡)'을 선보인다.

이번 정기공연 '종횡무진(縱橫無盡)'은 풍물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구성을 흥대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진달래 밴드와 함께 퓨전형식으로 풀어놓은 타악 콘서트로 玄鳳(현풍), 阿(아흥), 通(통), 장구 PROJECT 和, 신고사타령, 縱橫無盡(종횡무진)이라는 6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좌석은 전석 무료(초대권)이며,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좌석권으로 선착순 교환이 가능하다. 초대권은 익산예술의전

당, 습리문화예술회관, 모현도서관,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호남문고, 유정악기 프라자에서 배부한다.

김익주 익산시립풍물단 감독은 "이번 정기공연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흥미와 예술적 감동을 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자리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시민예술단의 공연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모전 개최

(재)전주국제영화제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원작은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주제를 타이포그래피, 사진, 상징물 기반의 그래픽디자인 중 1개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의 키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해야 하며 전주국제영화제 공식로고 및 화자, 개최일자 이미지를 반드시 포스터 디자인 내에 삽입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공중작업일 경우 1팀 3인 이하로 제한하며, 출품작은 국내외 미발표 작품에 한해 가능하다.

참가방법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jiff.or.kr에서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각 1부씩을 다운받아 작품 데이터(300dpi이상, 469*636mm사이즈)와 함께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publicity@jif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예상과 본심을 거쳐, 대상 1편(상금 200만원,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채택), 우수상 2편(상금 5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19일에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주제를 타이포그래피, 사진, 상징물 기반의 그래픽디자인 중 1개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문의는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미디어팀 publicity@jiff.or.kr 또는 (02)2285-0563.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8일>

<p>▷쥐띠 46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무리는 절대 금물. 60년생: 지나친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임을 명심하라. 72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 뒤로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는 운이다. 84년생: 동기진과 시비수가 따르니 가벼운 농담을 삼가라.</p>	<p>▷소띠 49년생: 신상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운.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되니 투기나 투자는 삼가라.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85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성사.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 사람의 조언을 구해보라.</p>	<p>▷토끼띠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니 혼자자 아님을 명심하라. 87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추진.</p>
<p>▷용띠 52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 앞을 내다보아라.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와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뱀띠 53년생: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운. 65년생: 자신은 갖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운. 77년생: 윗 사람에게 의지해야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으로 집중력이 저하된다.</p>	<p>▷말띠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반드시 화가 미친다. 66년생: 지금은 지속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내실을 다져라.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할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한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해봐라.</p>	<p>▷양띠 55년생: 베풀면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나친 과단성은 부작용을 불러오니 부드러운 울 유지하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용이한 운. 91년생: 때로는 겸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법.</p>
<p>▷원숭이띠 55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운. 69년생: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상이 악화. 8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는 운. 92년생: 손윗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다.</p>	<p>▷닭띠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협동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게 하는 요소가 된다.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면 좋은 결과.</p>	<p>▷개띠 49년생: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변동수를 갖는 것은 좋다. 61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니 조심하라. 73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라. 85년생: 몸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실수가 따르는 운.</p>	<p>▷돼지띠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현상 유지하라. 59년생: 정신이 산만한 운이다. 사소한 실수로 구설에 오른다.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3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p>